

보도 일시	2023. 3. 19.(일) 11:00	배포 일시	2023. 3. 19.(일) 11:00
-------	-----------------------	-------	-----------------------

**김대중-오부치 선언, 대중문화 개방 25주년****한일 미래 문화동행 프로젝트 가동****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인 방일 성과 확장**

- 코로나19 이후 일본 수학여행 첫 방한신호탄으로 MZ세대 교류 본격 재개
- 한일 문화장관 셔틀외교, 양국 '문화 동행 명예대사' 위촉 추진
- 청소년 스포츠교류 규모 확대, 만화K팝·이스포츠 등 콘텐츠 분야 교류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3월 19일(일)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한일 미래 문화동행(同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다양한 분야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김대중-오부치 대중문화 개방 25주년’이자 ‘겨울연가’ NHK 방영 20주년을 맞아 일본 내 K-컬처 저변을 넓히고 한일 MZ세대 간 교류 협력 사업을 짜임새 있게 마련, 지원한다.

박보균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인 방일 성과를 다지고 확장하는 ‘한일 미래 문화동행’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프로젝트”라면서 “MZ세대부터 교류와 소통의 장을 여러 형태로 마련 문화협력의 지평을 넓힌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전 세계인의 갈채를 받는 K-컬처의 한국과 콘텐츠 강국 일본 사이의 ‘경쟁 속 협력, 협력 속 경쟁’을 통해 글로벌 문화콘텐츠 분야를 이끌고 시너지 효과를 함께 체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청소년 한국 수학여행 재개...문화장관 셔틀외교 추진**

우선 21일(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일본 고교 수학 여행단(구마모토현, 37명)’의 입국을 환영하는 행사에 문체부의 MZ세대 ‘드림머스(dreamers, 2030청년자문단)’가 직접 나서 미래세대 교류의 재개를 응원한다.

또 문체부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미래세대가 한일 양국의 미래”라는 구상을 짜임새 있게 실천하기 위해 ‘한일 문화장관 셔틀 외교’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상호신뢰와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문화·체육·관광 교류·협력 사업으로 보다 정교하게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의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과거·현재·미래를 대표하는 양국 인사 10명 내외를 ‘한일 문화동행 명예 대사’로 위촉해 양국 교류의 역동성과 짜임새를 높일 계획이다.

### 콘텐츠, 스포츠, 관광 각 분야의 교류 확대 박차

오는 5월에는 일본에서 ‘케이-코믹스 인 저팬(K-comics in Japan)’ 프로그램을 내놓고, 경쟁력 있는 만화·웹툰 IP 보유업체의 일본 진출을 지원한다. 10월에는 K-팝 일본 쇼케이스(Korea Spotlight)가 열리며,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이스포츠대회(11월, 한국)에서도 한일 양국 선수들이 함께 하며 미래세대 우호를 증진한다. 블랙핑크 도쿄·오사카 투어(4월, 6월) 등 민간차원의 활발한 교류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4월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한일 스포츠 교류도 본격 재개·확대한다. 현재 하계 5종목 총 436명(한일 각 218명), 동계 4종목 총 444명(한중일 각 148명) 규모인 한일 청소년 간 동·하계 체육 교류의 종목과 규모 확대를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종목별 우수 청소년을 초청·과견하여 스포츠로 교류하고 양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사업도 재개할 예정이며(14종목 692명, 한일 각 346명 규모), 한일 청소년 간 국가교류전 추진도 검토한다.

‘2023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양국의 관광교류 회복도 더욱 가속화 한다. 4월에 도쿄·오사카·후쿠오카·히로시마·나고야의 5개 도시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특히 ‘2023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을 실천하기 위해 일본 황금연휴(골든위크)와 여름방학을 앞두고 일본여행업협회와 여행사·OTA(HIS·라쿠텐)와 협력해 “K걸처를 탑재한 매력 한국 관광”에 대한 세일즈를 집중 전개한다.

<참 고>

- ((양국문화장관 셔틀외교=4월 중 개최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청소년과 청년 등 미래세대의 문화교류 확대 방안을 화상회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대신과의 관광장관 회담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 ((K-콘텐츠=대일 수출액은 2021년 기준 수입액의 14배에 달할 정도로 일본 내 K-컬처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일본은 세계 3위의 콘텐츠 시장(2,082억 달러, '21년) 이자, K-콘텐츠 수출 시장의 15.4%(‘21년)를 차지하는 중요한 문화협력 파트너이다. <더 글로리> 등 한국 드라마가 일본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하고 방탄소년단(BTS)이 올해 일본 골드디스크 4관왕에 올랐다.  
2000년대 중장년 여성층을 대상으로 K-드라마에 집중되어 있던 한류는 이제 게임, K-팝, 방송, 웹툰, 영화,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연령대의 팬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 <스즈메의 문단속> 등 일본 애니메이션이 한국 영화관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담당 부서 <총괄>	문화예술정책실 국제문화과	책임자	과장 권도연 (044-203-2561)
		담당자	사무관 고희영 (044-203-2564)
<공동>	콘텐츠정책국 한류지원협력과	책임자	과장 신지원 (044-203-2381)
		담당자	사무관 이지은 (044-203-2378)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	책임자	과장 강지은 (044-203-2831)
		담당자	사무관 유혜원 (044-203-2832)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	책임자	과장 이정미 (044-203-3161)
		담당자	사무관 안소영 (044-203-3175)

